

## 디스플레이산업 정책포럼 8월 20-23일 개최

지식경제부는 8월 20-23일 평창 보광휘닉스파크에서 대기업 CTO, 연구소장, 중소기업 CEO, 연구개발자 등 산·학·연 관계자 6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<미래디스플레이 산업정책포럼> 및 <제3회 디스플레이 국가 연구개발사업 총괄 워크숍>을 개최하고 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.

8월20일에는 기조연설로 LG디스플레이의 정인재 CTO가 <미래디스플레이 기술과 해결과제>라는 주제로 글로벌 환경 변화 및 디스플레이산업의 변화에 따른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,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 각각의 동향과 해결과제를 살펴본 후 공동 발전을 위한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.

초청연사로 디스플레이뱅크 권상세 대표가 <평판 디스플레이 시장 동향과 부품 소재 국산화 현황>, 삼성전자 임순권 상무가 <Flexible 디스플레이 현황 및 전망>, 코오롱 강충석 상무가 <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>, 국민대 정지홍교수가 <생활속의 디스플레이>, 지식경제부에서 <정부의 디스플레이 R&D 정책방향>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.

산·학·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토론에서는 <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디스플레이 - 지속성장 전략방안>의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디스플레이 핵심원천기술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.

지식경제부 관계자는 “워크숍을 통해 대·대기업간, 대·중·소기업간 기술정보 교류 활성화 및 공동 R&D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함께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될 것”이라며 “워크숍을 통해 논의된 차세대 디스플레이 발전방안도 앞으로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8/08/18>